



개통 앞둔 '소록대교'

고흥 소록도(小鹿島)와 녹동항을 잇는 소록대교가 공사 착공 6년여만인 다음 달부터 차량을 제외한 사람 통행이 허용된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22일 임시 개통한 뒤 난간 등 안전시설 공사를 거쳐 내년 6월 말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소록대교는 다리와 연결도로 구간 등을 포함 총 연장 3천460m로 1천65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전남도는 교량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전망대와 휴게소,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고흥=주주경기자 gjuu@

나주 금천~남평간 국도 1호선 '댐질보수' 언제까지

도로 곳곳 균열 1년 가까이 보수공사 운전자들 "임시 처방...교통사고 위험"

국도 1호선인 광주~목포간 도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광주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주 금천~남평간 상행

선의 경우 곳곳에 균열(시공 이음부 파손)이 발생하고 도로가 패였는데도 댐질식 보수로 일관하고 있다. 이때문에 보수가 끝난 뒤 며칠도 되지 않아 다시 파손되는 악순환이 1

년 가까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 일부 도로변에는 도로 파손으로 인한 파편과 잔물들이 수북히 쌓여 있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부실한 도로 관리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도로는 하루 통행량만 5만대가 넘는데다 광주와 전남 서남부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운전자 김모(45)씨는 "전남의 대동맥인 국도 1호선 보수가 임시방편으로 이뤄지면서 운전이 위험을 느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 전반적인 보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정철환기자 chjung@

무안군 골프장 '법정공방 2라운드'

郡, 광주지법 인가 취소 불복 항소장 제출

무안군이 광주지법의 골프장 인가 취소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행정·사업자와 주민 간 법정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무안군은 변호사를 통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2심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특히 군은 1심에서 적시한 환경피해 부분은 우려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거우선주의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포함해 1심 및 농업용수 공급대책 등을 보완해 항소심 재판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23일 불무공원에 서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패소하

는 측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판결 후유증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무안군이 패소할 경우 업무로부터 허가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주민들이 패소하면 공사중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무안군 청계면 주민 63명이 제기한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무안군과 업체가 주장하는 이익과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에 비해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환경파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농협이 주민세 내줍니다

합평농협, 조합원 복지사업으로

합평농협이 관내 조합원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평농협이 대신 납부하게 될 주민세는 합평읍 지역 3천596명, 신광면 지역 887명 등 모두 4천483명으로 전체 금액은 2천465만6천원이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수납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농사일에 쫓겨 납기일을 넘길 경우 우려되는 가산금 부담이 해소되는 등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합평군 역시

주민세 체납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덜게 됐다. 옥부호 조합장은 "한·미 FTA 타결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협 이용에 따른 감사의 뜻으로 주민세를 대신 납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합평군은 지난 3월부터 출항한 자녀가 자동이체를 통해 고향 부모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는 '효 실천 지방세 대신 납부해 드리기'시책을 펴고 있다. /합평=박영진기자 pyj4079@

목포 의료원장 공모기준 완화 추진 시민단체 "특정인 위한 개정" 논란

관련 조례 개정안 의회 상정 ... 市 "적임자 영입 불가피"

목포시가 시 의료원 원장 공모모집을 앞두고 원장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일 입법 예고한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열린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뒤 의결을 받아 오는 11월 의료원장 공모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의학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임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국내외 병·의원에서 원장으로 10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는 자'로 변경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장 자격 기준 완화에 대해 지역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특정인을 영두에 둔 개정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목포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강진과 순천의료원 등이 현행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원장을 공모하고 있는데도 목포시가 갑자기 자격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

진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면서 "공공 의료기관의 의료 수준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원장 자격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할 판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임자 영입을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것일 뿐 사전 내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 의료원은 최근 직원 간 갈등으로 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비상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목포=이상진기자 sslee@

화순 삼천리 납골당 건립 마찰 이장단 180명 郡에 반대 진정서

29일 주민공청회 주목

화순읍내 한 사찰이 납골당 건립을 추진,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2일 화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H사는 사찰 주변 1천40㎡의 부지에 4천529㎡를 수용할 2층 규모의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납골당이 들어설 경우 지역 이미지와 미관이 크게 훼손하게 된다고 우려하며 최근 '납골당 건립 반대 대책위'를 결성하고 읍내 이장단 등 주민 180여 명 명의의 진정서를 군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특히 이 사찰은 지난 2004년 현 부지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납골당을 건립하려다 군이 신축

을 불허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가 패소, 건립이 무산됐었다"며 "그럼에도 또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당시 행정소송까지 갔지만 '부지가 농지로 납골당 신축은 대지 활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결에 따라 사찰 측이 패소했다"며 "이번에는 납골당 부지 위치를 변경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 없이 사업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은 오는 29일 주민공청회 개최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친 뒤 납골당 신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무안 회산백련지 연꽃 만발

무안 회산백련지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회산 백련지에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수련과 가시 연꽃 등을 감상하고 있다. 무안군은 자연생태공원 숲속에 그늘막 시설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휴식 공간을 조성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순천시 장애아 조기 치료비 지원

220명에 월 20만원씩

순천시가 장애인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지 시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시는 전남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장애아 조기 치료를 위해 220명에

게 각각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시는 심리와 미술, 음악, 운동, 놀이, 작업치료 등 8개 영역의 치료를 받는 장애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언어치료비의 경우 시간 당 2만5천~2만8천원에 달해 저소득층 장애인들은 선택 치료를 받기

힘든 실정에서 순천시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순천시는 또 매주 2차례 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수영 교실을, 매주 토요일 1차례 30명을 대상으로 태권도 교실을 각각 열고 있다. 장애인 수영 교실비의 경우 일반 시중 교실비의 20~30%인 2만 5천 원을 받고 있고 태권도 교실비는 저소득층과 시설 장애아동은 무료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강진청자 日 앙코르전

순회전시 호평 샌다이시서도 대성황

지난 6·7월 도쿄와 교토 등 일본 주요 도시에서 열린 순회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은 강진청자의 일본 앙코르전이 샌다이시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사진) 지난 20일 샌다이 코리아프라자에서 열린 강진청자 특별전 개막식에는 일본 주요 언론사와 여행사, 재일본민단,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2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일본 샌다이시와 한국

관광공사 일본 샌다이시사의 공동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특별전은 일본 순회전시 때 전시됐던 50여 점의 작품 가운데 청자어룡형주자(국보 61호), 청자상감모란국화문과형병(국보 114호) 등 국보재현품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강진군은 이번 앙코르 전시회가 다음달 개막되는 청자문화제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함평군, 보훈·현충시설도 관광벨트화

의병 활동지 등 나비축제와 연계 사업 착수

함평군이 보훈·현충시설을 나비축제 등과 연계해 관광 벨트화한다. 함평군은 의병 활동지 등 역사 현장을 테마별로 패키지화해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특히 26억4천800만 원을 들여 신광면 함정리 일강 김철선생(1886~1934) 기념관 내 2천43㎡ 부지에 세

울 '상해임시정부 청사복원 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사업은 국고 보조 7억9천400만원이 확정돼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또 임시정부 운영자금으로 전 재산을 헌납한 석정 안후덕 선생의 생가 복원사업도 내년 2억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낙도주민 애로사항 청취나서

김종식 완도군수 현장 돌며 민원 수렴

완도군이 낙도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소외된 낙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민원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일 군외면 사후도를 시작으로 23일까지 9개 낙도 순회 방문에 들어갔다. (사진) 완도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구 감소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등 읍·면 단위의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일부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해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낙도 방문에는 주민 의견 수렴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수리, 이·미용 봉사 등 자원봉사팀도 구



려 주민 생활 불편도 해소하고 있다. 김종식 군수는 "대부분의 유년도가 청년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고령의 주민들이 외롭게 살고 있다"면서 "이번 순회 방문을 계기로 섬 오지 주민들의 어둡고 가려운 곳을 찾아 적극 해결해 주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